

한국 Perfusionists의 현황과 문제점 - 주요 외국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 -

서울대학교

김 원 곤

서 론

Perfusionists는 인공심폐기 작동 및 관리를 통한 개심술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기타 심실보조장치, ECMO 등의 관류를 담당하는, 의료기사 영역 중 가장 생명과 밀접된 업무를 다루는 직종이다. 한국에서는 1963년 인공심폐기에 의한 현대적 의미의 첫 개심술이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에서 처음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40여 년간 인공심폐기의 기계적 측면 뿐 아니라 이를 다루는 심폐바이패스 기법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인공심폐기와 심폐바이패스 운용의 주체가 되는 Perfusionists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Perfusionists의 중요성과 관련 주변 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Perfusionists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Perfusionists 자격 제도의 확립이나 공식적인 교육 과정 정립 등에 관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1994년, 2003년 두 차례 조사된 한국 Perfusionists 현황을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Perfusionists 현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Perfusionists의 발전적 제도 정립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인공심폐기 및 심폐바이패스학의 학문적, 실무적 발전에 일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국내 현황은 설문 조사 당시 개심술을 시행하고 있는 각 병원에 설문을 보내어 소속 Perfusionists에 대한 다음과 정보들을 통합 취합하여 이루어졌다. 인원, 소속, 성별, 보유

자격증 종류, 근무 연수, 관장 업무, 개심술 수. 2003년에 시행한 본 설문 조사는 1994년에 시행한 유사한 내용의 미공개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외국 국가의 현황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 제도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일본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유럽 17개 국가들의 자료를 취합 분석하였다. 이 중 미국 자료는 문헌에 기보고 된 자료와 함께 현 미국 체외순환기술사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Extra-corporeal Technology, AmSECT)의 executive director인 George M. Cate와 1993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개인 통신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일본 역시 보고 된 문헌 참고와 함께 일본체외순환기술연구회 武田正則 회장과의 1993년, 2004년 개인 통신 자료를 주 자료로 하였다. 유럽의 경우 유럽 심혈관 관류협회(the Europe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 EBCP)의 Kirk Graves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의 협조를 얻어 2001년 제1차 유럽 perfusion education and training 학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17개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